



# 안세회계법인 • 829-7575

## 세 계 재 경 Answer

... 2021/3/2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·經營戰略

### 대규모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범위와 절차, 불이익 관련 규정

- 성실신고확인대상 : 개인대사업자(일정매출규모(농업 등 15억원, 제조서비스업 7.5억원, 부동산업 등 5억원 이상)) + 부동산임대주업이면서 과점주주 법인 등
  - 법인요건
    - ① 지배주주 등 50% 초과
    - ② 부동산임대수입 + 이자 + 배당이 총매출의 70% 이상
    - ③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등 ①②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임)
- 성실신고확인은 회계감사에 준하는 인증(assurance) 업무이므로, 회계법인 · 회계사 · 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고, 사무직원은 기장 · 성실신고서작성 · 보조하되 성실신고확인권한자는 될 수 없음(불법)
- 실제 수행현실
 

회계사무소의 각 사무직원이 철저기장하고 + 성실신고확인서 내용기재완결 후 → 담당회계사 등에게 작성 자료제출 → 담당 회계사가 검토, 보완지시, 수정, 삭제 등 성실내용이 완전히 파악되어야 확인(성실확인 안 되면 회계사 · 세무사 명의의 성실신고 거절됨) : 성실하지 않은 회사에 성실신고확인 서명하면 회계사 · 세무사 자격 취소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엄격함.
- 성실확인보수 청구관계
  - ① 각 고객은 성실신고지급수수료의 60% 세액공제 받음(한도 : 개인 120만원, 법인 150만원)
 

→ 따라서 기존의 세무조정수수료 이외에 성실신고만을 위한 업무보수로 개인은 200만원 내외(=120만원 ÷ 60%), 법인은 250만원(=150만원 ÷ 60%)을 추가수수료로 책정하는 관행 : 각 납세자는 수수료의 60%를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지급액의 일부 40%만 부담하는 결과가 됨.
  - ② 매출누락, 부실경비 · 가사경비, 비적격증빙 등으로 수입 · 원가 · 판관비 등이 불성실하면, 어느 회계사 세무사도 자기 명의로 성실신고 확인을 해주지 않음.
- 성실신고확인 기간과 불이행시 불이익
  - ① 법인
    - 3월말일반신고 → 1개월 추가해 4월말 성실신고, 불이행시 법인세산출액 × 5% 가산세 + 세무조사
  - ② 개인
    - 5월말일반신고 → 1개월 추가해 6월말성실신고, 불이행시 사업소득세액 × 5% 가산세 + 세무조사
- 관련 법인세 · 소득세법 규정(참고할 것)
  - 법인세법 제60조의2① · ②항, 법인세법 제75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① · ②항 등
  - 소득세법 제70조의2, 제81조의2(가산세),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②항
  -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① · ②항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6①항 등

고객 담당자 :